

그림 속 식물요소를 통해 본 「독서여가도」(讀書餘暇圖)의 의미

홍형순 · 김명희

중부대학교 환경조경학과

The Implicative Meaning of 「Dokseoyeoga Do」 Observed with Plant Elements Included in the Painting

Hong, Hyoung-Soon · Kim, Myung-He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Joong-Bu University

ABSTRACT

「Dokseoyeoga Do」(*An Enjoyable Pleasure with Reading*) is a work included in a collection book of both poems and works called as 「Gyunggyo Myungseung Cheop」(*Collections of Beautiful Scenery in the Suburb of Seoul*) with a promise that a great painter Gyumjae Jung-Sun(謙齋 鄭澈) and his lifelong friend, Sacheon Lee Byung-Yeon(槎川 李秉淵) should hopefully exchange their poems and painted works. So far, general perspective of art history toward this work is either self-portrait of Gyumjae himself or genre painting of the aristocra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in-depth meanings implied in this work with various considerations of plant elements appeared in this work.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could draw newer and additional meanings beyond the existing perspectives of art history research categories, and the details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below. First of all, we could approach a new interpretation implying that Gyumjae and Sacheon hopefully wished their well-being, friendship, and reunion. Second, as a means of expressing this meaning, plant elements like old juniper(*Juniperus chinensis* L.), orchid(Orchidaceae), and peony(*Paeonia lactiflora* var. *hortensis*) were used. Third, each plant element can be literally seen as an icon implying message that Gyumjae desired to give to Sacheon. To be more detailed, experience and greenness of old juniper imply well-being of two people, and orchid implies fragrant friendship, and peony implies the feeling that Gyumjae hopefully desired to make a reunion with a parted frien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throughout old paintings, we could observe substantial examples of recognizing the meanings of plant elements in a category of traditional landscaping and utilizing them. Moreover, adding various point-of-views of many professional categories like Korean Landscaping history in the traditional painting research, we could also recognize the potentials for making rich interpretation toward implicated meanings of old paintings.

Key Words : Gyumjae Jung-Sun(謙齋 鄭澈), Sacheon Lee Byung-Yeon(槎川 李秉淵), Juniper(*Juniperus chinensis* L.), Orchid(Orchidaceae), Peony(*Paeonia lactiflora* var. *hortensis*)

국문초록

「독서여가도」는 겸재(謙齋) 정선(鄭澈, 1676~1759)과 그의 평생지기인 사천(槎川) 이병연(李秉淵, 1671~1751) 간의 시화환상간(詩畫換相看) 약속으로 주고받은 시와 그림의 합벽첩인 『경교명승첩』에 장첩되어 있는 그림이다. 지금까지 이 그림에 대한 미술사 분야의 일반적인 견해는 겸재 자신의 ‘자화상’ 혹은 ‘사인풍속도’라는 것이다. 본 연구의

본고는 2010년도 한국전통조경학회 춘계학술논문발표회(2010년 4월 9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발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 Hong, Hyoung-Soo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Joongbu University, 101 Daehak-ro, Chubu-myeon, Keumsan-gun, Chungcheongnam-do 312-940, Korea. Phone : +82-41-750-6740, E-mail : hshong@joongbu.ac.kr

목적은 「독서여가도」 속의 식물요소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림이 내포하고 있는 심층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로, 기존의 미술사 연구 분야의 견해에 더해 보다 새로운 의미들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그림은 겸재와 사천이라는 두 노장의 건강과 안녕, 우정과 재회라는 주제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는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였다. 둘째, 이러한 의미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오래된 향나무, 난초, 작약이라는 식물요소가 활용되었다. 셋째, 각 식물요소는 겸재가 사천에게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메시지를 담은 아이콘이라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만년송이라고 불리는 오래된 향나무의 연륜과 푸르름은 두 사람의 건강과 안녕을, 난초는 지란지교의 향기로운 우정을, 작약은 헤어져 있는 벗과의 재회를 바라는 겸재의 심정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옛 그림을 통해 전통조경에 있어서 식물요소들이 지닌 의미와 그 활용에 대한 실증적인 사례를 고찰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전통 회화 연구에 있어서 한국조경사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시각을 더함으로서 옛 그림에 내재한 의미에 대해 보다 새롭고 풍부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겸재 정선(謙齋 鄭敼), 사천 이병연(槎川 李秉淵), 향나무(*Juniperus chinensis* L.), 난초(*Ochid*), 작약(*Paeonia lacitiflora* var. *hortensis*)

I. 서론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에게 격물치지(格物致知)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각각의 물(物)에 이르러 그 이치를 깨닫는 방식이었고, 그들은 우선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부터 생각했는데 그것을 이른바 '근사'(近思)라고 한다(박영택, 2006). 따라서 근사는 모든 공부의 기본이었고, 공부의 대상은 인간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사물이었다.

이러한 격물치지와 근사라는 학문적 자세의 결과물 중의 하나로 강희안(姜希顔, 1417~1464)의 「양화소록」(養花小錄)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수목과 화훼의 본성을 살피고 이를 재배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각각의 나무와 꽃에는 선비들에게 귀감이 되는 품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소나무의 지조, 국화의 은일, 매화의 품격 등이다. 이러한 성리학적 전통과 태도는 18세기 이후에 이르러는 사물 그 자체의 아름다움에 집중되기도 하였고, 이런 영향을 토대로 유박(柳璞, 1730~1787)은 「화목구등품제」(花木九等品第), 「화품평론」(花品評論) 등을 저술하기도 하였다(정민, 2005). 이러한 영향으로 옛 사람들은 주변의 꽃과 나무들에게 각기 고유의 의미, 품(品)과 격(格)을 부여하고 이를 완상하는 전통을 이어왔다.

기호학(semiotics)은 기호들로 구성된 특정 상징체의 구조와 여기에 내재된 의미를 분석하는 학문이다. 기호학의 관점에서 인간은 기호 속에서 살아가며, 사람들은 기호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한다. 인간이 창조적 동물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인간이 기호들을 엮어 의미 있는 상징체로 만들어 내는 능력을 갖춘 존재임을 가리킨다(김경용, 2001). 우리의 옛 그림이나 현대 회화들도 비언어적 기호체계의 하나이며, 그림 속에 수목과 화훼 역시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기호로 사용되기도 한다. 회화에 있어서 '식물성'은 우리 주변의 한 떨기 꽃이나 하찮은 풀과 나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동

양인의 마음과 정신 속에 철학적·인생론적 뿌리 인식을 심어 주었고 우리들 삶에 의미 문맥을 형성한 것들이었으나, 현대 회화에서는 장식적이고 습관적인 미술의 초라한 소재로 전락하였다(박영택, 2006).

또 오주석(1999)은 우리의 옛 그림 속에는 옛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으며, 한 폭의 작은 그림에는 옛 문학, 옛 건축, 옛 음악, 옛 풍속, 옛 의상, 옛 글씨 등 여러 분야가 고루 관여하고 있으니, 거기에 실려 있는 것들을 모두 살펴보면 참으로 끝이 없다고 한다.

「독서여가도」는 겸재(謙齋) 정선(鄭敼, 1676~1759)과 그의 평생지기인 사천(槎川) 이병연(李秉淵, 1671~1751) 간의 시화 환상간(詩畫換相看) 약속으로 주고받은 시와 그림의 합벽첩인 『경교명승첩』에 장첩되어 있는 그림이다. 이 그림은 조선시대 선비의 일상인 '독서와 여가'를 주제로 하고 있어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한 그림이다. 이 그림에 대한 미술사 분야의 일반적인 견해는 겸재 자신의 '자화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대의 화성(畫聖)인 겸재와 13,000여 수의 시를 남긴 대시인인 사천 사이에 주고받은 이 그림을 단순한 자화상으로만 보아 넘기기에 는 무언가 미진한 점이 있었다.

이 그림 속에 내재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독서여가도」 속에 표현된 수목과 화훼에 주목하였다. 그림 속의 수목 1주와 2개의 화분에 심겨진 화초들은 단순한 장식요소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독서여가도」 속의 수목과 화초 등 식물요소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림이 내포하고 있는 심층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있다.

II. 연구의 배경 및 방법

1. 그림의 제작 배경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의 문하에서 겸재는 사친과 동학하였다. 두 사람의 집도 스승택의 좌우에 있어서 항상 백악산 기슭에서 뛰놀며 자랐고 그들의 친분도 남달랐다(최완수, 2003). 사친은 겸재보다 5년 연상이었으나, 평생지가 되어 훗날 “시에서는 사친, 그림에서 정선”으로 병칭된다(유홍준, 2001).

겸재는 65세(영조 16년, 1740년)에 양천현 현령으로 부임하게 된다. 그 다음 해인 영조 17년(1741년)에 절친한 벗 사친과 시화환상간(詩畫換相看)의 약조를 한다(최완수, 2009). 즉, 헤어져 있는 동안에도 두 사람이 서로의 시와 그림을 바꾸어 보자는 약속이다. 이 약속을 토대로 진경시화의 양대 거장이 주고받은 시와 그림의 합벽첩인 『경교명승첩』¹⁾(1740~1741년 제작)이 만들어졌다(최완수, 2004).

『경교명승첩』 하권에는 겸재와 사친이 시화환상간의 약속을 하던 정경을 그린 그림인 「시화환상간」도 있다(그림 1 참조). 이 그림 다음에는 사친의 편지가 실려 있으며, 겸재는 사친의 편지 한 구절을 그대로 이 그림의 제서로 적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 시, 자네 그림 서로 바뀌봄에, 그 사이 경중을 어이 값으로 논하여 따지겠는가. 시는 간장(肝腸)에서 나오고, 그림은 손으로 휘두르니, 누가 쉽고 어려울지 모르겠구나. 신유(1741) 응춘에 사제(槎第)²⁾.

제서의 첫 글자 옆에는 ‘천금이나 되는 큰돈을 준다 해도 남의 손에 넘기지 말라!’는 뜻의 ‘천금물전(千金勿傳)’이라는 도



그림 1. 「시화환상간」 1751년 경, 견본담채, 26.4×29.5cm, 『경교명승첩』 하. 간송미술관
(출처: 최완수, 2009)

장을 찍어 겸재가 이 그림에 대해 갖는 애착을 보여준다(오주석, 1999: 219). 이렇듯 「독서여가도」는 겸재와 사친 두 사람의 각별한 인연을 바탕으로 그려진 그림 중 하나이다.

2. 미술사 분야의 견해

『경교명승첩』은 상·하 2권으로 장첩되어 있고, 여기에는 총 43폭의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들은 후대에 다시 장첩되는 과정에서 그 순서가 교란되었을 수도 있으며, 그 가능성은 하권에서 더욱 크다고 한다(최완수, 2009). 본 연구의 대상인 「독서여가도」는 『경교명승첩』 상권의 맨 앞에 있는 그림이다. 그림의 내용은 겸재 자신이 뒷마루에 나와 잠시 휴식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 그림은 선비의 일상인 ‘독서와 여가’를 주제로 하며, 주인공과 서가 등 단순한 구도의 그림으로 일반 대중들에게도 친숙한 그림이다. 지금까지 이 그림에 대한 미술사 분야의 견해는 겸재의 자화상 혹은 사인풍속도(士人風俗圖)라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양모(2009)는 「독서여가도」는 「인곡유거」와 함께 겸재의 외모나 창작 산실을 짐작할 수 있는 자화상격 그림이라고 했다. 최완수(1993; 2004; 2009)도 겸재가 화분에 담긴 화초를 감상하고 있는 모습으로 “겸재가 평소 인왕곡 인곡정사(仁谷精舍)에서 생활하던 양상을 그린 자화상으로, 바깥사랑채에서 독서의 여가에 잠시 더위를 식히며 시상에 잠겨 화리(畫理)를 탐구하고 있는 자신을 사생적 필치로 그렸다”고 하였다. 또 이 그림은 그를 애타게 그리워하는 사친의 요청으로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유봉학(2003)은 겸재에 대해 우리의 자연경관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은 물론 그의 산수 속 인물들이 대부분 우리의 의관 풍물을 보이고 있다는 면에서 풍속화의 단서를 제공했다고 한다. 특히 그의 자화상인 「독서여가도」는 전통적 인물화를 사인풍속도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독서여가도」와 「인곡유거도」 등은 “서울과 교외를 생활권으로 하는 경화사족의 건실한 생활상을 전형적으로 보여 주는 사인풍속도(士人風俗圖)”(유봉학, 2006: 99)라고 했다. 장진성(2007)도 조선 후기 사대부의 경제적, 정서적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사인풍속화로 ‘독락’(獨樂)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고 했다.

윤진영(2006)도 겸재의 자화상 성격의 그림이며, 사인풍속도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그는 특히 「독서여가도」 속 겸재의 서재에 걸린 산수화와 겸재가 들고 있는 부채에 그린 선면화(扇面畫)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하였다.

유홍준(2001)은 겸재 평전에서 “뒷마루에 나와 앉아 화분에 핀 모란꽃을 감상하는 여유로운 모습을 그렸으며, 손부채의 그림과 책장 문쪽에 그려진 그림이 모두 겸재 그림 같아서 자화상적 인물화”라고 했다. 특히 그림 속 화분의 꽃을 모란꽃으로 오독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문양과 회화, 건축 등 제반 의장요

소로 '모란'이 폭넓게 사용되어온 것에 연유한 듯하다. 또 그림 속의 식물요소를 단순히 감상의 대상이 되는 장식 요소로만 파악하였다.

이상과 같은 「독서여가도」에 대한 미술사 분야의 연구 성과를 종합해 볼 때, 대부분의 연구는 그림의 형식과 한국 미술사적 가치 등에 주안점을 두어 진행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이 그림을 겸재의 자화상 내지 풍속화로 결론짓고 있다. 또 그림 속의 식물요소들에 대해 단순한 장식적 요소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았다. 즉, 그림과 시에 있어 당대의 두 거장이 주고받은 그림 속에 정교하게 묘사된 수목과 화초 등 식물요소에 내재된 의미에 주목한 연구는 없었다.

3. 연구의 방법

고연희(2007)는 기존의 회화사 서적들이 표현의 형식을 중시했던 것에 더해 그 형식의 역사 밑에 숨어 있는 내용을 들추어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에 의하면 "산수화의 내용을 살피는 연구가 활발히 시도되고 있어 구곡도, 계획도, 산거도, 아집도, 무이산도, 팔경도, 어부도, 기유도, 시의도 등의 내용에 근거하여 갈래를 세워보고 논의함으로써 그 시절 문사들의 생활과 꿈 혹은 욕망을 만나볼 수 있는 새로운 경로"라고 하였다.

오주석(1999)에 의하면, 옛 사람들은 '그림을 본다'(看畫)는 말보다 '그림을 읽는다'(讀畫)는 말을 쓰기 좋아했으며, 이는 서화일률(書畫一律)의 전통으로 글씨와 그림이 한 가락이므로 보는 방법도 '읽는 것'이라 한다. 또 그림 속의 형상보다 그린 사람의 마음이 주가 되는 문인화에서는 '그림 읽기'가 더욱 중요하며, 감상의 원칙은 '옛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옛 사람의 마음으로 읽는 것'이라 하였다.

본 연구는 「독서여가도」를 겸재와 사천의 눈과 마음으로 읽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단순히 자화상으로 알려진 이 그림의 이면에 감추어진 의미까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방법은 그림의 의미를 고찰하고 해석하는 기술(description)적 연구방법이 사용되었다.

Ⅲ. 결과 및 고찰

1. 도판 개요

매우 단순한 구도의 이 그림은 뒷마루에 앉은 인물을 중심으로 실내의 서가와 향나무 한 주가 배경을 이루며 두 개의 화분이 전경을 이루고 있다. 동양화의 화론에서는 허(虛)와 실(實)의 대비를 강조한다. 즉, 화면에 "뽁뽁하기는 바람조차 통하지 않아야 하고, 성긴 곳은 말이 달릴 정도"(서은숙 역, 2003: 133)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그림은 이러한 화론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데, 인물을 중심으로 배경에는 빼곡히 쌓인 책



그림 2. 「독서여가도」. 영조 17년(1741년) 건본채색, 16.8×24.0cm. 『경교명승첩』 상. 간송미술관 소장 (출처: 최완수, 2004)

과 치밀한 향나무의 지엽이 배경을 이루고, 전면에는 텅 빈 마당에 두 개의 화분만 있다. 겸재 자신인 그림 속 인물은 전경과 배경 간의 균형을 잡는 중심의 역할을 한다. 전면 마당에 놓인 두 개의 화분은 그림의 구도에 초점이 된다. 그림 속 겸재 자신의 시선도 이 화분들을 그윽이 바라보고 있다.

2. 도판 속의 식물요소

1) 향나무

향나무(*Juniperus chinensis* L.)는 측백나무과(Cupressaceae)의 향나무속(*Juniperus*)에 속하는 상록성의 침엽교목 내지 관목으로서 우리나라 정원에 즐겨 식재되어 왔다. 목재의 색이 붉은 빛이 도는 자주색이라 자단(紫檀)이라 부르기도 하고, 나무에서 향기가 난다고 하여 목향(木香)이라고도 부른다.

서재의 결문을 통해 보이는 향나무는 뒤틀린 줄기와 가지 등이 이루는 수형으로 보아 오래된 노목임을 알 수 있다. 높은 수령에도 불구하고 뒤틀린 줄기와 질푸른 녹색의 잎으로 왕성한 수세를 표현하고 있다.

향나무나 소나무는 줄기가 뒤틀려 구불구불 자라는 것을 상품으로 쳤으며,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수형의 향나무나 소나무

를 화계 등에 즐겨 심었다(이선, 2006). 강희안의 「양화소록」 ‘만년송’(萬年松) 편에는 “만년송은 증진 가지에 푸른 잎이 마치 타래실이 아래로 드리운 듯하고, 나무줄기가 뒤틀려 꾸불꾸불한 게 꼭 붉은 뱀이 숲 위로 올라가듯 하고 청렬(淸冽)한 향기가 풍기는 것이라야 이름답다”(이병훈 역, 2009: 38)고 하였다. 그림 속의 붉은 수간과 가지, 수관 표현은 마치 강희안의 만년송에 대한 서술을 그림으로 옮긴 듯하다(그림 2 참조).

예로부터 송백(松柏)은 지조와 연륜을 상징한다. 송백(松柏)의 ‘백’(柏)은 숫자를 표기하는 ‘백’(百) 자의 소리를 빌어 백수(百壽) 즉 장수를 의미하기도 한다. 또 백수(白壽)는 일백 백(百)의 획수에 한 획이 빠진 글자로 99세를 지칭한다. 따라서 그림 속 향나무는 칠순을 넘긴 사친의 장수를 기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러한 개연성은 겸재의 「노백도」(老伯圖)³⁾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노백도의 구불구불한 수간은 초서체의 목숨 수(壽)자를 형상화하였다. 그



그림 3. 「노백도」(老柏圖) 18세기 전반, 종이에 수묵담채, 131.6×55.6cm. (출처 : 호암미술관, 2007)

림의 상·하단에는 찬문(讚文)이 있는데, 상단에는 대래(大來)라는 이가 노승(老僧) 예백(禮伯)에게 줄 때 쓴 글이 있고, 하단에는 심전(心田) 안중식(安中植)이 운양(雲養) 김윤식(金允植)의 장수를 축원하는 글이 있어 이 그림의 의미와 소장 흐름을 알 수 있다(<http://blog.naver.com/zxcvbnm7997?Redirect=Log&logNo=10022147171>).

2) 난초

난의 모습은 동양고전의 미를 응축하고 있는데, 꽃이 없을 때도 녹엽의 모습만으로도 훌륭한 미관을 갖추고 있다. 또한 어떠한 진귀하고 고가한 명품이라도 모두가 야생종으로 그 모습에 깊은 자연미를 함축하고 있다. 교배에 의한 신종 작출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원예계에서 동양란뿐이라고 하는 것도 난을 순결한 것으로 보게 해주는 큰 소인이다(한국자생란연구회, 1989).

그림 속 빗마루 전면에는 두 개의 화분 중 하나는 난초가 심어진 화분이다. 난초는 특정 식물을 지칭하기보다는 난초목(蘭草目, Orchidales) 난초과(蘭草科, Orchidaceae)에 속하는 식물을 총칭하며 일반적으로 난이라고 한다.

난초는 고고한 자태와 맑은 향기로 인해 선비들이 즐겨 가꾼 화초 중의 하나이다. 「양화소록」에도 난향을 국향(國香)으로 귀하게 서술하였다. 춘란과 같이 한 꽃대에 한 송이 꽃이 피는 ‘일경일화’(一莖一花)를 난(蘭)이라 하고, 건란과 한란과 같이 한 꽃대에 여러 송이의 꽃이 피는 ‘일경구화’(一莖九花)를 혜(蕙)라고 구분하기도 한다(문봉선, 2006).

전통적으로 난초는 고귀한 사람이나 벗을 의미한다. 『명심보감』(明心寶鑑) 「교우」(交友) 편에는 “지초와 난초는 둘 다 향기로운 꽃으로, 지란지교(芝蘭之交)는 곧 지초와 난초처럼 맑고 깨끗하며 두터운 벗 사이의 사귀를 일컫는다”라고 하였다. 또 공자(孔子)는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오래 되면 향기를 맡지 못하니, 그 향기에 동화되기 때문이다”⁴⁾라고 하였다. 이는 『주역』 「계사전」(繫辭傳)의 천화동인(天火同人, ䷌) 괘(卦)를 설명하는 내용 중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두 사람의 일치된 마음은 그 날 카로움이 쇠를 끊을 만하고 마음속에서 일치하는 말은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⁵⁾라고 한데서 유래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겸재는 『주역』에 조예가 깊었으며, 「도설경해」(圖說經解)라는 저술을 남긴 바 있다. 이 외에도 고귀한 우정을 의미하는 말로 금란지교(金蘭之交), 금석지교(金石之交) 등이 쓰인다.

3) 작약

전술한 바와 같이 그림 속 화분에 핀 꽃을 모란(*Paeonia suffruticosa*)으로 판독하는 오류가 많았다. 모란과 작약(*Paeonia lactiflora* var. *hortensis*)은 둘 다 탐스럽고 화려한 꽃이 피고 약재로도 쓰이므로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즐겨 가꾸어 왔기 때문이다. 모란은 목단(牡丹)이라고도 하며, 미나리아재비과의



그림 4. 모란 문양 사례
(출처 : <http://www.designdb.com>)

낙엽관목이다. 모란은 나무이고, 작약은 겨울에 땅위의 줄기가 모두 죽어버리고 뿌리만 살아 있는 여러해살이 풀이다(박상진, 2001). 꽃의 모양이나 색깔과 크기 및 피는 시기도 비슷하고 잎 모양도 닮아 있어서 흔히 모란과 작약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모란의 잎은 3엽으로 작은 잎은 달걀모양을 한다. 꽃은 홍색으로 피고 지름이 15cm 이상이다. 모란의 잎은 손바닥처럼 넓적하게 3~5개로 갈라지는 특징이 있는데, 그림 속의 식물은 화분에 심겨져 있으며, 잎이 길쭉하며 가장자리가 밋밋하여 모란의 잎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므로 작약임을 알 수 있다.

모란은 꽃이 크고 화려하고 호화로운 분위기를 주며, 옛 중국에서도 ‘꽃 중의 왕’(花王)이라 하였다(이선, 2006). 우리나라에서도 모란은 전통적으로 정원에 즐겨 식재된 수종이다. 또 모란은 부귀영화를 상징하여 민화 등 각종 그림과 다양한 의상 요소로 사용되어 왔다. 길상문으로서 모란문은 자수, 의상, 도자기, 가구공예, 건축 등에 폭넓게 적용되었다(그림 4 참조). 모란 문양은 궁중, 사찰에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또 상서로운 행사뿐 아니라 장례식에도 사용되는 등 그 용도가 매우 광범위했다(박은순, 2008). 이렇듯 전통적으로 폭넓게 사용된 모란 문양은 한국인들에게 매우 친숙하며 또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유흥준의 저술(2001)에서도 그림 속의 꽃을 모란으로 오해한 듯하다.

작약은 함박꽃이라고도 하며, 미나리아재비과(Ranunculoideae)의 여러해살이풀이다. 꽃은 줄기 끝에 1개가 피며, 꽃 색이 다양하여 전통적으로 원예용으로 널리 재배되어 왔다. 최근에 유박(柳璞)이 저술한 것으로 밝혀진(정민, 2003) 「화암수록」(花庵隨錄) 중 ‘화품평론」(花品評論)에 작약은 “모든 꽃부리에서 뛰어난고, 희고 붉은 것이 서로 높음을 자랑한다. 논하되, 작약은 충실하고 화려함이 화왕(花王)보다 못하지 않으니...”(이병훈 역, 2009: 170)라고 하였다. 즉, 작약은 모란에 버금가는 꽃으로서 널리 애호된 화초였음을 알 수 있다. 또 「화암수록」의 ‘화목구등품제」(花木九等品第)에도 작약은 모란, 왜홍(倭紅) 등



그림 5. 작약과 난초(「독서여가도」의 부분)
(출처 : 최완수, 2004: 19에서 필자 편집)

과 함께 ‘부귀(富貴)를 취하느(取富貴) 2등의 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작약의 별칭은 귀우(貴友) 또는 화상(花相)이라고도 한다(이병훈 역, 2009).

특히 그림의 구도와 내용에 있어서 작약을 심은 화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그림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그림 5 참조). 즉, 화면 전면에 위치한 작약 화분은 전체 화면의 구도를 잡아주는 초점이 된다. 특히 화면 속의 검재 자신의 시선도 작약 화분을 그윽이 응시하고 있다. 작약은 예로부터 재회를 약속하고 이별을 아쉬워하며 선물하는 꽃이었다(조성진·조영렬 역, 2004). 중국에서 일명 ‘가리(可離)라고 하여 ‘이별의 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작약을 의미하는 ‘작(芍)자가 약속을 의미하는 ‘약(約)자와 중국어 발음이 비슷하여 ‘재회를 약속하는 꽃이다(이선, 2006).

4) 화분의 국화 문양

그림 속 백자 화분에는 국화 문양이 새겨져 있는 점도 주목

할 만하다. 국화(*Chrysanthemum morifolium*)는 흔히 ‘군자의 은일과 절개’를 상징하는 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대 중국의 약학서적인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 장수(長壽)에 도움이 되는 약초로 기록되어 있고, 예로부터 중앙절에 국화주를 마시거나 장수하기 바라는 사람에게 국화를 주는 풍습이 있었다(조성진과 조영렬 역, 2004). 이렇듯 불로장수를 의미하는 국화는 장수화(長壽花), 수객(壽客), 부연년(傅延年), 연령객(延齡客) 등의 다른 이름으로 불렸고, 기국연년(杞菊延年) 혹은 송국연년(松菊延年)이라는 축수의 문구를 부처 환갑·진갑 등의 잔치상에 헌화로 많이 사용되었다(이상희, 2004).

5) 종합

이 그림이 그려진 정황과 함께 그림 속에 표현된 식물들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을 종합해 볼 때 기존 미술사 연구 분야의 해석에 더해 보다 새로운 의미의 추론이 가능하다. 즉, 이 그림은 겸재가 헤어져 있는 벗 사천에게 보내는 비언어적 기호들로 채워져 있다. 즉, 이 그림은 겸재가 사천에게 전하고자 하는 간절하고 애절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그 의미들을 표상하는 상징물로 수목과 화초가 사용되었다.

이 그림을 그릴 때는 겸재는 이미 65세를 넘었으며, 사천은 겸재에 비해 5년 연상이었으므로 당시의 여건과 기준으로서는 무척이나 장수를 누리고 있는 노장들이었을 것이다. 그림 속의 주인공은 벗을 그리워하는 겸재 자신의 모습이다. 겸재는 그림의 배경이 되는 오래된 향나무를 통해 사천과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 즉, 늙기는 했으나 연륜이 담긴 굴곡진 줄기와 가지, 무성한 푸르름, 청렬한 향기 등 향나무의 이미지는 두 노장의 견재함과 장수를 바라는 표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속 화분의 난초는 겸재 자신과 사천의 귀한 우정 즉 지란지교를 상징하고 있다. 마치 헤어져 벗을 대하듯 수시로 눈길을 주는 난초 화분을 통해 사천을 그리워하는 겸재의 마음과 일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화면의 초점을 이루는 작약 화분은 헤어져 있는 벗과의 재회를 기약하는 아이콘이다. 겸재는 ‘이별’과 ‘재회’를 상징하는 ‘작약’을 통해 그리운 벗 사천에게 간절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또 불로장수를 의미하는 국화 문양이 화분에 새겨진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렇듯 그림 속의 식물 소재들은 겸재의 간절한 메시지를 담은 기표(記標, signifiant)이다. 이들을 통해 겸재 자신과 사천이라는 두 노장의 ‘견재함과 안녕’과 ‘우정’ 그리고 ‘재회의 약속’이라는 기의(記意, signifié)를 담고 있다. 당대를 풍미한 대시인인 사천도 이 그림에 담긴 각별한 메타포(metaphor)를 충분히 읽어 내었을 것이다.

III. 결론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에게 있어서 격물치지(格物致知)와 근

사(近思)라는 학문적 자세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각각의 물(物)에 이르러 그 이치를 깨닫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학문 태도는 수목과 화훼의 본성을 살피고, 이를 재배하는 방법에까지 관심의 폭을 넓히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옛 사람들은 각각의 나무와 꽃들에는 선비들에게 귀감이 되는 품성이 있다고 생각했으며, 주변의 꽃과 나무들에게 각기 고유의 의미, 품(品)과 격(格)을 부여하고 그 대상을 완상하는 전통을 이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독서여가도」 속에 표현된 수목과 화초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림이 내포하고 있는 보다 심층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즉, 단순한 구성의 이 그림 속에 그려진 그림 속의 수목 1주와 2개의 화분에 심겨진 화초들은 단순한 장식요소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 ‘겸재 자신의 자화상’, ‘사인 풍속도’로 밝혀진 기존의 미술사 연구 분야의 견해에 더해 보다 새로운 의미들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그림은 겸재와 사천이라는 두 노장의 건강과 안녕, 우정과 재회라는 주제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는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였다.

둘째, 이러한 의미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오래된 향나무, 난초, 작약이라는 식물요소가 활용되었다.

셋째, 각 식물요소는 겸재가 사천에게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메시지를 담은 아이콘이라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만년송이라고 불리는 오래된 향나무의 연륜과 푸르름은 두 사람의 건강과 장수를, 난초는 지란지교의 향기로운 우정을, 작약은 헤어져 있는 벗과의 재회를 바라는 겸재의 심정을 내포하고 있다. 화분에 있는 국화문양 역시 불로장수를 기원하는 상징물이다.

이 그림은 당대를 풍미한 화성과 대시인 간의 우정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이들은 헤어져 있는 동안에 시화환상간(詩畫換相看)의 약속을 하였고, 겸재는 벗을 그리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그림을 그렸다. 시인인 사천은 벗이 보내온 각별한 메타포(metaphor)를 충분히 읽어 내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옛 그림을 통해 전통조경에 있어서 식물요소들이 지닌 의미와 그 활용에 대한 실증적인 사례를 고찰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전통 회화 연구에 있어서 한국 조경사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시각을 더함으로써 옛 그림에 내재한 의미에 대해 보다 새롭고 풍부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주 1) 시화상간첩(詩畫相看帖)이라고도 불리는 이 화첩은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주 2) 我詩君畫換相看, 輕重何言論價問. 詩出肝腸畫揮手, 不知誰易更誰難. 辛酉仲春槎第. (최완수, 2009: 185에서 재인용).

주 3) ‘백’(柏)은 일반적으로 잣나무나 측백나무를 지칭하므로 「노백도」에 표현된 수종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선(2006)은 송백(松柏)이라는 용어에 대해 단지 소나무와 잣나무 또는 소나무와 측백나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소나무 등속인 상록침엽수를 대표하는 용어로 보는 견해도 있다고 하였다. 또 「양화소록」에서도 향

나무를 ‘만년송(萬年松)으로 칭하였고, 향나무의 한자명이 향목(香木)과 함께 원백(圓柏) 혹은 회백(檜柏)으로 표기되기도 한다(임업연구원, 1992).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노백도」 속의 수종을 향나무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주 4) 子曰 與善人居 如入芝蘭之室 久而不聞其香 卽與之化矣... 『孔子家語』
 주 5) ...二人이 同心하니 其利斷金이로다. 同心之言이 其臭如蘭이로다 (김인환, 2006: 518).

인용문헌

1. 고연희(2007). 조선시대 산수화. 아름다운 필묵의 정신사. 서울: 도서출판 돌베개.
2. 김경용(2001).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3. 김인환 역해(2006) 주역.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4. 문봉선(2006) 새로 그린 매란국죽 1. 서울: 도서출판 학교재.
5. 박상진(2001) 궁궐의 우리나라. 서울: 놀와.
6. 박영택(2006). 회화에 나타난 식물성의 상상력(교수신문사, “우리시대의 미를 논한다”).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7. 박은순(2008).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그림. 한국문화재보호재단.
8. 임업연구원(1992). 한국수목도감.
9. 서은숙 역(2003). 시는 붉고 그림은 푸르네. 黃玉峰. 詩情畫意. 서울: 도서출판 학교재.
10. 오주석(1999).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 서울: 솔출판사.
11. 유봉학(2006). 경화사족의 사상과 진경문화(최원수 외, “우리 문화의 황금기 진경시대 1, 사상과 문화”). 서울: 도서출판 돌베개.
12. 유봉학(2003). 조선 후기 풍속화 변천의 사회·사상적 배경(최원수 외, “우리 문화의 황금기 진경시대 2, 예술과 예술가들”). 서울: 도서출판 돌베개.
13. 유홍준(2001). 화인열전 1. 서울: 역사비평사.
14. 윤진영(2006). 독서의 여가와 산수도. 문헌과 해석. 2006년 겨울호 통권 37호: 29-39.
15. 이병훈 역(2009). 양화소록. 姜希顔 『養花小錄』. 서울: 을유문화사.
16. 이상희(2004).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3. 서울: 넥서스 BOOKS.
17. 이선(2006). 우리와 함께 살아온 나무와 꽃. 서울: 수류산방. 중심.
18. 장진성(2007). 조선후기 사인풍속화와 여가문화. 미술사논단. 24: 261-291.
19. 정민(2003). 화암구곡의 작가 유박과 화암수록. 한국시가연구. 14: 101-133.
20. 정민(2005). 18, 19세기 문인지식층의 원에 취미. 한국한문학회연구. 35: 35-77.
21. 정양모(2009). 정선 그림의 특징과 위상(국립중앙박물관, “겸재 정선, 붓으로 펼친 천지조화” 테마전 도록). 서울: 통천문화사.
22. 조성진·조성렬 역(2004) 한시와 일화로 보는 꽃의 중국문화사. 中村公一. 中國の愛の花ことば. 서울: 뿌리와 이파리.
23. 최원수(1993). 겸재 정선 진경산수화. 서울: 범우사.
24. 최원수(2003). 겸재 정선과 진경산수화풍(최원수 외, “우리 문화의 황금기 진경시대 2, 예술과 예술가들”). 서울: 도서출판 돌베개.
25. 최원수(2004). 겸재의 한양진경. 서울: 동아일보사.
26. 최원수(2009). 겸재 정선 2. 서울: 현암사.
27. 한국자생란연구회編(1989). 동양란 가꾸기. 서울: 세종문화원.
28. 호암미술관(2007). ‘한국미술 속의 정원을 걷다’ 전통정원 회원 개원 10주년 기념전 도록.
29. <http://blog.naver.com/zxcvbnm7997?Redirect=Log&logNo=10022147171>.
30. [http://www.designdb.com\(한국산업진흥원 디자인 데이터베이스\)](http://www.designdb.com(한국산업진흥원 디자인 데이터베이스)).

원고접수: 2010년 4월 14일

최종수정본 접수: 2010년 5월 25일

2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